10. 밑줄 친 활용형 중, 그 모습의 바뀜을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?

① 강물이 흘러 가고 있다.
② 회색빛 천장 아래 가만히 누웠다.
③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.
④ 나는 양동이에 물을 부어 놓았다.

11.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 활용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은?

① 노래를 불렀다.
② 물을 많이 폈다.
③ 노력하여 성공했다.
④ 얼굴이 하얘졌다.

12. '성수는 그 사람에게 책을 주었다.'라는 문장에 나타난 형태소와 단어의 수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?

① 10-8
② 12-8
③ 10-9
④ 12-9

13. 단어의 활용형이 모두 올바른 것은?

| | 기본형 | 활용형 | |
|---|---|---|---|
| ① | 푸다 | 푸어 | 푸니 |
| ② | 베다 | 베어 | 베니 |
| ③ | 긋다 | 긋어 | 긋니 |
| ④ | 담그다 | 담궈 | 담구니 |

14. 밑줄 친 말이 '아프다[痛]'가 활용되는 것과 같은 일반적 음운 규칙에 따르는 것은?

① 하늘이 도와서 제가 합격한 것 같습니다.
② 이렇게 신나게 노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.
③ 여기에 선을 그어 보아라.
④ 나는 어제 물을 퍼 올렸다

15. "그는 구조가 다른 집을 짓는다."라는 문장에서 밑줄 친 '다른'의 품사를 맞게 짝지은 것은?

① 관형사
② 동사
③ 형용사
④ 부사

16. 다음에서 파생어끼리 짝지어진 것은?

① 시나브로-주검
② 검붉다-지붕
③ 밥물-선생님
④ 덧버선-모가지

17. 현대 국어에서 생산성을 가지지 못하는 단어 형성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는?

① 굶주리다
② 등불
③ 작은아버지
④ 뛰어나다

18.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?

① 개나발 같은 소리 그만 좀 해라.
② 무고한 학생들만 개죽음을 당하였다.
③ 그따위 개수작에 넘어갈 그녀가 아니야.
④ 겉만 번지르르한 게 그게 다 빛 좋은 개살구라구.

19. 밑줄 친 '생'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?

① 생김치 : 익지 아니한
② 생가지 : 가공하지 아니한
③ 생부모 : 직접적인 혈연 관계인
④ 생지옥 : 지독한, 혹독한

20. <보기>를 참고할 때, 밑줄 친 접두사로 쓰이지 않은 것은?

① 드높은 가을 하늘이 싱그럽다.
② 은행잎이 샛노랗게 물들었다.
③ 물가가 치솟고 있다.
④ 접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.

21.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알맞은 것은?

>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법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. 즉 우리말에서는 '어미'가 생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, 어미가 생략되어 합성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. 또 부사는 일반적으로 부사나 용언을 수식하는데 특이하게도 명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.

① 새마을
② 곶감
③ 바람나다
④ 이리저리